

국별 리포트

# 요르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0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98천 km <sup>2</sup>	G D P	210억 달러 (2009년)
인구	6.3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3,336 달러 (2009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Jordanian Dinar (JD)
대외정책	친미노선	환율 (달러당)	0.71 (2009년 평균)

- 요르단은 이스라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한 중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절반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6.3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입헌군주국임.
- 석유·가스의 매장량이 미미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금융, 부동산, 운송,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 정책을 변경,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압둘라 (Abdullah II Ibn Al-Hussein) 국왕이 군부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8.2	6.9	5.8	2.4	3.2
재정수지/GDP	-7.0	-7.9	-9.6	-11.9	-10.7
소비자물가상승률	6.3	5.4	14.9	-0.7	5.5

자료: IMF 및 EIU

#### □ 경제성장세 둔화

- 2005~06년 요르단 경제는 2003년 이라크전 발발로 인해 이라크로부터 원유 특혜지원이 중단\*되고 최대 교역 대상국이었던 이라크와의 중계무역, 구상무역이 타격을 입었으나, 예상치 못한 'Iraq & Gulf Effects'로 인해 평균 6.8%의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요-이 무역 의정서에 따라 이라크는 요르단에 연간 5.5백만 톤의 원유를 절반은 무상, 나머지 절반은 국제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요르단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2003년 이라크전 발발로 중단

- 'Iraq Effect' : 전쟁을 피한 이라크인의 요르단 유입증가에 따른 경기 부양효과 (부동산, 호텔, 운송, 무역 등)
- 'Gulf Effect' : 유가급등으로 급속히 불어난 여타 걸프 연안 국가들의 투자자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인 요르단으로 급속히 유입되는 현상

- 2007~08년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輸入) 수요 감소,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해외 자본 유입, 주력 생산품인 가성칼리 및 인광석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5~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대외원조 및 FDI 유입이 감소하고, 관광 및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 성장은 2.4%로 둔화되었으며, 2010년에도 3%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및 세수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적 부채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정부보조금 및 국방, 치안 부문 지출 등으로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6~0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반 판매세 및 법인세 수입 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1.9%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재정지출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0%대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그동안 3%대의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6~0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정부의 유가 보조금 축소, 이라크인 유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각 6.3%, 5.4%까지 상승하였음.
-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급등, 정부의 유가 보조금 축소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인 14.9%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및 상품 가격의 상승,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요르단의 통화 디나르(Dinar)는 미 달러에 대한 페그제를 운영 중 (US\$1=JD0.709 고정환율제 적용)

## 2. 경제구조·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취약한 제조업 기반, 서비스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요르단은 비산유국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하나, 중동 지역의 교통 요충지라는 지형적 이점으로 금융 및 부동산, 정부서비스, 운송 중심의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하여 GDP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비 (2009년 9월 기준) : 서비스업 (65.7%), 제조업 (19.8%), 건설 (6.1%), 광업 (1.7%), 농림수산업 (3.8%) 등
- 서비스업은 금융 및 부동산 (20.5%), 정부서비스 (14.9%), 운송 및 통신 (17.8%), 상업 (12.5%) 등으로 구성
-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제조업이 전체 GDP의 19.8%를 차지하기는 하나, 섬유, 비료 및 화학원료를 비롯한 원자재 산업이 대부분으로, 생활용품, 산업용품 등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요르단의 수입품목별 비중은 운송기계 및 기계류 30.6%, 공산품 20.3%, 원유 및 석유관련제품 15.9% 등임.

### [성장 잠재력]

#### □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역 물류 허브 성장 가능성 풍부

- 요르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홍해를 접하고 있는 아카바(Aqaba)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을 잇는 서부 중동지역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 같은 교통,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은 이라크 전쟁(2003)과 레바논 전쟁(2006)을 통해 그 진가가 크게 발휘되기도 하였음.
- 최근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아카바 신항 및 3개 대규모터미널(일반 화물 및 자동차용 터미널, 곡물 터미널, 여객선 전용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간합작) 형식으로 추진 중이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정책성과]

### □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

- IMF는 비대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 이에 따라, 압둘라 국왕은 1999년 취임 이후 재정수입 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전력, 석유, 운송 등 부문별로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① 2003년 Arab Potash Company(국영 칼륨개발공사)의 매각(지분 52%), ② 2006년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인광개발공사)의 매각(지분 37%), ③ 2007년 Royal Jordanian(국영 항공사)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음.
- 2008년에는 Jordan Petroleum Refinery Company(JPRG)의 민영화 작업을 착수한데 이어, 의료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추진해 옴.

###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압둘라 국왕은 자본 및 기술 부족 타개를 위해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0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00.10), 대미관세면제특구(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 아카바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를 조성함으로써, 국내경제 체질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암만시 내륙 물류 단지 및 환상도로 건설, 총 7억 달러 규모의 주거 및 상업단지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2006년에는 약 8억 달러 규모의 '마르카(Marka) 특별 개발구역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극빈 지역인 마르카 지역을 향후 19년에 걸쳐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대규모 물류 및 유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 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4년 8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6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FDI : 20억 달러(2007) → 20억 달러(2008) → 13억 달러(2009)

□ 재정적자 확대 지속

- 요르단은 IMF의 권고에 따라 유가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그러나 대규모 공공부채와 국방에 대한 지출, 세수 감소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2009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재정지출 감소정책에 힘입어 점진적 개선이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1,705	-2,865	-2,139	-1,285	-975
경 상 수 지 / G D P	-11.7	-16.9	-10.4	-6.1	-4.3
상 품 수 지	-5,056	-6,451	-7,165	-6,132	-5,637
수 출	5,204	5,732	7,937	6,366	7,333
수 입	10,260	12,183	15,102	12,498	12,970
외 환 보 유 액	6,979	7,929	8,918	12,140	12,624
총 외 채 잔 액	8,055	8,368	6,550	6,766	5,522
총 외 채 잔 액 / GDP	55.1	49.2	31.7	32.2	24.1
D . S . R .	5.9	5.6	25.9	4.4	4.8

자료: IMF 및 EIU

##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상품수지는 섬유, 화학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요르단은 원유와 밀(연간 70만톤)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와 밀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함.
  - 경상수지도 2004년 흑자를 기록한 이후,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의 영향을 받아 2005년부터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2009년에는 국제 생필품 가격 하락세로 인해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2010년에도 약 1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요르단은 페트라 (Petra)를 비롯하여 다수의 성서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수입이 GDP 대비 8~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해외거주 요르단인의 국내 송금규모가 GDP 대비 17~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08년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 상품수지 : -72억 달러(2008) → -61억 달러(2009) → -56억 달러(2010)
  - \* 소득수지 : 7억 달러(2008) → 6억 달러(2009) → 3억 달러(2010)
  - \* 서비스수지 : 4억 달러(2008) → 7억 달러(2009) → 10억 달러(2010)
  - \* 경상이전수지 : 39억 달러(2008) → 35억 달러(2009) → 33억 달러(2010)



## [외채상환능력]

### □ 외환보유액 증가,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2000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원조자금 및 대규모 FDI 유입,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말 외환보유액은 12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 수입액의 8.6개월분에 해당

- 총 외채잔액은 최근 수년간 약 8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약 6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율은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 최근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 DSR도 10%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비교적 충분하여 단기적으로 외채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2008년 D.S.R은 25.9%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파리클럽의 외채(21억 달러)를 2008년 1/4분기 조기상환한 데 주로 기인하였음.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정치 안정]

#### □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 지속

-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1999년부터 압둘라 국왕의 통치하에 있음.
- 압둘라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이슬람 보수주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패척결 및 행정 투명성 증대, 금융부문 개혁 등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 아울러, 정치활동 및 언론의 자유 등의 정치개혁 추진에도 주력하여 국정 운영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개혁 기초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에 National Agenda를 발표함.
- National Agenda는 선거법, 정당법, 연금법,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 노동법 등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간의 국가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
- 압둘라 국왕은 2009년 11월 높은 실업률과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명령하고 2009년 12월 요르단 왕실과 가까운 정치 명문가 출신인 사미르 리파이(Samir Rifai)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음.
- \* 입헌군주국인 요르단에서 국왕은 각료 임면권과 법률 승인권, 의회 해산권 등의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 2010년말까지 리파이 총리 내각은 압둘라 국왕이 견지해온 시장 개방과 친서방 정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 □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긴장감을 극복하고 정치 안정세 유지

-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로 인해 요르단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팽배하였으나, 우려했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3년 6월에 역사적인 미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정상회담을 아카바에서 유치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아나폴리스(Annapolis) 중동평화회담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협상 해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여타 아랍 국가들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이-팔 협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입증하였음.
- 또한 압둘라 국왕은 2010년 9월 미국에서 재개된 중동 평화협상에서도 백악관에 초청되어 오바마 대통령과 중동 평화이슈에 대해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 [국제관계]

##### □ 서방국가 및 주변국가 등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 압둘라 국왕은 주변 아랍국 및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서방국가에 대한 활발한 방문을 통해 중동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각인시키고 있음.

- 요르단은 대미외교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약 5억 달러(군사원조 2억 달러 포함)의 원조를 지원해 왔으며, 양국 교역은 대미관세면제특구(QIZ) 설치(1996),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01. 12)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2010년 요르단에 6.6억 달러의 원조(군사원조 3억 달러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며, 2010년 8월 미국 하원은 요르단에 대한 1.5억 달러 추가 원조(군사원조 50백만 달러 포함) 지원을 승인하였음. 이번 미국 하원의 추가 원조 승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팔 중동 평화협상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요르단은 이라크전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경제적 반대급부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총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의 반미 감정은 여전히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 지속

- WTO 가입, QIZ 운영 및 여타 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실업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문제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요르단의 실업률은 2002년 15.3%에서 2008년 12.7%로 매년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2.9%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이-팔 분쟁상황에 따른 사회불안 가능성 잠재

- 인구의 60%가 팔레스타인계\*임에 따라 이-팔 분쟁상황은 지속적인 시위발생 등의 형태로 요르단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요르단 인구 구성 : 팔레스타인인 60%, 토착 요르단인 31%, 기타 9%

## □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성과도 지지부진

-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금자에 대한 학대·고문,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불투명한 조사 과정, 보안 당국의 신뢰성 부족, 사법적 과정에 대한 간여 등 광범위한 경찰권의 남용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
- 연금, 사회보장, 상속, 노동, 이혼, 여행의 자유, 시민권, 명예살인 등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요르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인 사건의 25% 가량이 명예살인(honor killing)\*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명예살인 행위는 murder(살인)가 아닌 manslaughter(고살)로 간주되며, murder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장 2년 형을 선고 받는 정도임.
  - \*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
- 정부는 인권에 관한 제반 국제협약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5등급 (2009. 4) → 5등급 (2010. 4) 유지
- Moody's : Ba2 (2003. 8) → Ba2 (2007. 12) 유지
- S&P : BB (2003. 7) → BB (2007. 12) 유지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과거 여러차례 리스케줄링 경험

- 요르단은 파리클럽으로부터 1989~99년 간 5차례에 걸쳐 8억 달러의 채무상환연기를 하였고,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 다시 총 외채의 17%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

#### □ 외채상환부담 감소

- 2007년 10월 요르단 정부의 요청으로 파리클럽과 총 21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 할인하여 조기상환(buy-back 방식, 할인된 조기상환 금액 19억 달러)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외채상환부담이 경감되었음.
- 이와 같은 조기상환은 요르단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양호한 외채관리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요르단은 2008년 1분기에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영화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등으로 채무액을 상환하였음.
-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요르단의 채무는 총 외채의 60% 수준인 4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buy-back 대상국은 프랑스(8.58억 달러), 영국(6.94억 달러), 미국(3.61억 달러), 스페인(92백만 달러), 독일(30백만 달러) 등임.
- 2009년 11월 정부 재정적자 해소 및 정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World Bank로부터 3억 달러 규모의 차입을 결정하였으나, 외채 증가액이 크지 않고,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D.S.R도 10%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요르단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386	734	1,019	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 등
수 입	48	55	31	비금속광물 등
합 계	434	789	1,050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2. 7. 26 (북한과는 1974. 7. 5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72), 문화협정(1977), 경제 및 기술협정(1977), 항공협정(19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2004),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2004), 관광협력협정(2005), 원자력협력협정(2008)
- 우리나라와의 2009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약 10.5억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자동차), 기초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약 10.2억 달러, 수입은 비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약 31백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4.7%(7.6억 달러)이며, 특히, 요르단은 우리나라 최대 중고차 수출시장으로서, 2009년 86천 대(3.8억 달러 상당)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전체 중고차 수출에서 32.5%를 차지함.
  - 최근에는 발전, 하수처리, 건설,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국내기업(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LS전선 등)의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 2010년 1월~8월까지 대 요르단 수출액은 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4% 증가하였음.
    - 2010년 1월 대우건설이 5MW급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요르단은 향후 10년 내 완공을 목표로 원전건설을 추진중임\*\*.
    - \* 총 사업비는 약 150백만 달러이며, 이 중 70백만 달러를 EDCF로 지원키로 하였음(2010. 3월 승인).
    - \*\* 2008. 11. 31 ~ 12. 2일 간 압둘라 국왕 방한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전, 담수, 대수로 건설사업에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키로 합의

- 또한 요르단은 아카바 신항만 건설공사(약 2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중으로 우리나라의 POSCO 건설과 STX 건설 등도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요르단 남부 Fujeij 지역 90-mw급 풍력발전소 건설(약 70백만 달러 규모) 입찰에도 대우인터내셔널이 입찰에 참여하여 심사가 진행중임.
- 아울러 요르단은 현재 홍해-사해 프로젝트(Jordan Red Sea Project)\*를 추진 중이며,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담수화 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됨.
  - \* 홍해에서 사해까지 166km에 이르는 대수로를 건설하여 사해의 수량 감소와 오염을 막고 홍해 아바카만에 담수화 공장을 건설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
- 한편, 수입은 요르단의 빈약한 수출산업 기반으로 인해 비금속광물 등 일부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음.

□ 해외직접투자(2010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14건 15,503천 달러

## V. 종합의견

- 요르단 경제는 빈약한 산업기반,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기조, 대외원조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취약점이 있으나, 섬유수출 호조, 관광산업의 회복, 공공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8년까지 평균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에는 3~4%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요르단 경제는 완만한 회복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14.9%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0.7%를 기록하였고, 향후에는 5%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외환보유액은 미국 등 해외원조자금, 대규모 FDI 유입,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60%에 달하던 총외채잔액도 2008년 파리클럽 채무 조기상환 등에 따라 최근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DSR도 10%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임.

- 대외적으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 압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요르단 교역규모는 2009년 기준 10.5억 달러 수준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에는 건설, 플랜트 등 요르단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